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2-24]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뜻하며, ‘내 일의 열매’라는 말은 그가 살면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며 또 그들 중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성도는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며 그리스도께로 간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회개한 한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23:43).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8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증거하였다. 성도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옵는 것은 참으로 사모할 만한 일이다. 천국은 이 수고로운 세상, 광야와 같고 눈물 골짜기와 같고 죽음의 그늘진 땅인 이 세상보다 더 사모할 만한 곳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 곳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유익하다’는 원어(이닝카이오스)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25-2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진보성장과 기쁨을 위하여’—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였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 만일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해서 더 이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할 일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 필요성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임을 알았다. 26절의 ‘자랑’이라는 원어(카우케마)는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다(KJV, NIV). 문맥상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자신으로 인해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원어들론테스[함께 싸우는](KJV, NASB, NIV)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며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의(義)에 일치하게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4:1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교훈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방향(거룩, 의, 선)이 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거슬러 행하지 말고 그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복음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하고(고전 1:10; 빌 2:2),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12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했고, 디모데후서 4:7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다. 유다는 유다서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교훈하였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의 보수와 변호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8절] 아무 일에도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또 한가지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과 전도의 일에는 환난과 핍박이 예상된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이며, 그것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표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는 말은 이렇게 진실히 믿고 핍박까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고전 4:7). 우리의 우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고전 15:10).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또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29-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는 당연히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조롱을 당하고, 그

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이다.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레[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셨다(마 5:11-12).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과 싸움이 있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난을 자세히 증거했다(고전 4:9-13; 고후 6:4-10; 11:23-27).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교회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교회이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그러하였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우리는 주께서 회개한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보을 것이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담대히 원해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 때문이다. 주께서는 친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3: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4).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된다.

**둘째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했다. 로마서 14:7-8,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특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변호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천주교회와 이단 종파들뿐 아니라,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의 용납과 복음주의의 타협

과 은사주의의 혼란과 세속적 교회음악(CCM)과 열린 예배의 풍조가 교회들 속에 만연해 있다. 침된 교회들은 이런 배교와 타협과 혼란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근본주의적 장로교회가 취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 입장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즐거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위해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계시의 성격**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啓示)이다. 요한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계시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었다. 갈라디아서 1: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받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종말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자신의 모든 뜻을 계시하셨다(히 1:1-2).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 자신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다. 창조에 대한 진리도, 구원에 대한 진리도, 종말에 대한 진리도 그렇다. 종말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적 권위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되신다.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 성경은 삼위(三位)[세 인격]의 구별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등으로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神性)[신적 본질]과 인성(人性)[인적 본질]을 가진 한 인격이시다. 신성(神性)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구별되시나 한 하나님이시다. 물론, 인성(人性)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신다.

이처럼 세 인격의 구별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들의 관계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성령이 그의 신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분명하게, 충분히 증거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요 1:1), ‘참 하나님’(요일 5:20), ‘크신 하나님’(딤후 2:13)으로 불리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예컨대, 포도주 기적, 떡 기적, 나병, 중풍병 치료, 죽은 자들 살리심 등), 또한 하나님과 나란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다(계 5:13).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있을 일들, 즉 종말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 속에는 대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등이 포함된다. ‘반드시’라는 말은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종말 예언의 내용들은 진실하고 확실하다. 또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본서의 계시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이 말씀을 주신 지 2천년이 지났다. 교회는 이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태도이다.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벧후 3:8).

계시의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보이기 위함이다. ‘그 종들’은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로마서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본서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주어졌다(계 22:8). 또 그 방법은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지시하신’이라는 원어(세마이노)는 본래 ‘상징으로 나타내다’(signify)(KJV)는 뜻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예언의 책이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의 증거자는 사도 요한 자신이다. 요한은 자기 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이며, 사도 요한이 본 바이었다. 본서에는 '본다'는 말(에이돈)이 57회나 사용되었고, 그 중에 '또 내가 보니'라는 말(카이 에이돈)이 32회나 나온다. 요한은 많은 상징적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았다. '다 증거하였다'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본서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기록하였음을 증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이다. 성경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딤후 3:16-1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에 무엇을 가감(加減)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계 22:18-19).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옛날에는 책이 귀하므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다. 그래서 읽는 자(단수명사)와 듣는 자들(복수명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지키다는 말은 성경말씀을 보수(保守)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보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특히 계시록을 통한 복은 환난을 대비함과 인내와 위로의 복이고(13:10; 14:12) 성도가 환난과 죄악을 이겨 마침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복이다(22:5, 17).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인 성경은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되다.

계시된 내용은 긴급한 일들이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성도에게는 항상 종말의식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 본서와 성경 다른 곳들에 예언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인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 교회들의 배교(背敎),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세계복음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계에도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이상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에 주목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해

석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덮어두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인 이 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은 종말 예언서이다. 우리는 세상 종말에 관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성경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며 큰 평안을 얻는다(시 1:1-3; 119:165). 요한계시록은 특히 장차 올 대환난에서 마귀를 대적할 믿음과 인내를 준비시키며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소망하고 위로를 얻게 한다.

## 송구영신에배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4:16-18]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하자. 첫째로, 우리는 어떤 환경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 몸의 건강이나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또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국제 정세가 어떠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자. 그것은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롬 6:13) 재림의 주 앞에서 흠과 점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베후 3:14).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신 32:39).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시 39:6-7).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가정적, 사회적 평안까지 도우시고 공급하신다.

**책대** 전화: 02-334-8291. 송료 1,000~5,000원.

-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1,500원.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2,000원.
-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1,500원.
-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3,000원.